

회원사 동정

1.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동향

열병합발전업체는 대부분 연료 다소비업체이므로 환율폭등에 의한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유를 주연료로 하는 업체는 심각한 실정이다.

복수터빈을 설치한 업체는 유가인상에 의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업체도 있으며 대부분 월별로 비용분석을 하여 터빈가동 중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1월중에도 터빈가동을 중지한 업체도 있고 현재는 공정의 안정상 가동을 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큰 업체도 있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이상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발전기 및 터빈의 가동을 중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전국민, 전 산업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 피해를 다소나마 감소시키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업체들은 9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사용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을 2년정도 유보하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로 역송전하는 전력에 대해서 연료가격과 연동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병합발전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으로 발전기 및 터빈을 가동 중지하였을 경우 약 3,000MW의 시설용량으로 국가전력의 약 9% 점하는 시설의 가동중지로 전력수급과 열전용 보일러 가동으로 환경적인 문제점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에서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1998년 2월 6일에 개최되는 정기 총회에서 중지가 모아질 것으로 본다.

2. 수상을 축하합니다.

○에너지절약 유공자 수상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통상산업부가 후원한 '97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수여식(97. 12. 4)에서 그동안 불철 주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 훈장을 수상한 한술제지 구형우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사의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특히 97년 말에는 경제난과 외환위기로 에너지절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수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는 보다 값진 것이며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술제지	에너지관리공단	포항제철(주)	포항제철(주)	(주)거평제철화학
부 회장 구형우	부이사장 김종승	포항제철소장 이구백	부장 최성문	과장 장근영
금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통산부장관표창

삼성중합화학(주)	울산석유화학(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열병합발전본부
직원 최장하	과장 이용만	직원 김형만	
통산부장관 표창	통산부장관 표창	통산부장관 표창	

○10억불 수출탑 수상

1997년 12월 1일에 개최된 제3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협회 회원사인 현대정유(주)(대표:정몽혁)가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대정유는 디젤유, B-C유, 나프타등 10억 6천 8백여만불 상당을 수출한 실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수출증대로 수출입국을 재건해야 하는 시점에서 10억불 수출탑 수상은 더욱 값진 것으로서 전 회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